



Bravo! 2022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내일을 위한 발걸음 중장년을 다시 깨우다

경험과 열정으로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중장년들이 한 데 모였다.

지난 6월 14일 열린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현장.

박람회에 참석한 중장년 구직자들의 얼굴에는 '아직 더 일할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가 감돌았다. 그들의 도전을 응원한다! "Bravo!"



고양시통합
일자리센터



재취업을 위한 희망의 빛

지난 6월 14일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들의 힘찬 발걸음이 고양꽃전시관으로 씩 없이 이어졌다.

구직자들은 박람회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일자리 게시판부터 꼼꼼히 살펴보았다. 자신의 경력에 맞는 기업들을 확인한 뒤 찾아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서다. 현장면접관 부스에는 열정적인 중장년 인재를 찾기 위해 모인 29개의 기업이 자리를 잡았다. 전기·전자부품 제품 조립원 등 총 527명 채용을 목표로, LG이노텍(파주), 삼구, LS, 한국맥도날드 등 굵직한 기업들이 참여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력서를 사전 제출한 지원자, 현장에서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들이 채용 담당자와 일대일 면접을 보는 시간. 구직자들은 면접관의 질문에 진지한 답변을 하며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과 열정을 드러냈다.

현장면접관 반대편에는 취업활동을 돕는 진로탐색관도 마련되었다. 일자리 상담을 비롯,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진로탐색을 돕는 다양한 분야의 부스까지 운영되어 구직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업관에서 상담 후 받은 팸플릿을 양손에 가득 들고 이동하는 구직자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엿보였다. 중장년들에게 멋지게 찾아올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태욱(덕양구 원흥동, 61세)

66 100세 시대에 우리 나이는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심하지만 그럴수록 희망이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해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한순임(덕양구 토당동, 53세)

66 중장년들이 일하기 힘든 상황이 많아요. 그럴 때 고양시 일자리박람회와 일자리센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